순천시 '예술인센터' 건립 추진

문화예술인 창작 공간 마련
시민 문화 향유 기회 제공
지역 문화예술 허브 역할
전문가·시민 의견 수렴키로

순천시 문화예술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집담회를 열고 '예술인센터' 건립을 논의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가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공간 마련과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순천 예술인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순천시는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창작활동과 고품격 문화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문화예술관련 단체와 집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집담회에서 문화예술인들은 평소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품었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무엇보다 문화예술인들은 창작활동과 작품을 전시·공개 할 수 있는 공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순천시도 지역문화 예술인들의 사무실, 교육공간, 창작공간, 휴게공간 등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예술인센터 건립 추진을 구상하고 전문가와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예술인센터에 대한 논의가 완성되면 적당한 부지 선정과 건축 절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순천시는 2019년 순천문화재단을 설립해 예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예술인 등록제 대행 및 맞춤형 지원 서비스 추진, 창작예술지원 공모사업 등 전문 문화예술인 양성 등을 추진했다.

또 문화예술 후원 '순천문화틔움' 운동 확산으로 문화예술의 부흥을 위한 노력과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펼쳤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예술인센터 건립에 대한 필요성은 오랜 기간 제기돼 왔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모아 예술인센터가 복합문화 공간으로 지역 문화예술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해창만 물고기 잇단 폐사
고흥군, 추가 조사 의뢰

고흥 해창만에서 숭어 집단폐사에 이어 붕어, 배스, 가마우지가 죽은채 발견돼 원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고흥군에 따르면 철새 도래지인 해창만에서 지난 12일 집단 폐사한 숭어떼가 발견됐다.

군은 지난 숭어떼 폐사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일부를 수거해 전남 보건환경연구원과 남해수산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조사를 의뢰했다.

폐사한 숭어떼는 600마리 이상으로 확인됐으나 추가 폐사가 이어졌다.

검사 의뢰한 죽은 숭어에서는 병원체 등 특별한 원인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흥군은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 검사에서 병원체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남해수산연구원이 실시한 질병 검사도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독성 물질 조사를 했으나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군은 이 과정서 숭어 외에 붕어와 잉어, 가마우지 등 사체가 발견되자 추가 검사를 의뢰했다.

해창만 인근 주민들은 수상 태양광발전소 패널 세척에 따라 물고기가 폐사한 것으로 의심했으며, 업체는 세척 과정서 세제를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흥군도 수질 검사에서 이상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고기 폐사 원인을 단정 지을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구례 섬진강변 활짝 핀 벚꽃터널 장관

구례 섬진강변 동해로에 벚꽃이 활짝피어 장관이다. 간전면 남도대교 부근에서 섬진강변 거슬러 올라 곡성 섬진강천문대까지 끝없이 이어진 벚꽃 터널은 상춘객들의 마음을 설레이게 하기에 충분하다. 구례군엔 섬진강변을 비롯해 서시천변 벚꽃길 등 약 300리에 달하는 벚꽃길이 조성돼 있다. 올해 구례 벚꽃은 4월 초 절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여수시, 지역 작가 작품 구매…힘 실어준다

한국화 등 8개 부문 창작 활동 지원

여수시는 지역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술작품을 구매한다.

구매 대상은 한국화, 서양화, 문인화, 서예, 조각, 공예, 사진, 서각 등 8개 부문이다.

응모 자격은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다.

개인전을 2회 이상 개최했거나 기획전 또는 그룹전에 3회 이상 출품한 경력이 있으면 응모할 수 있다.

응모를 희망하는 예술인은 다음 달 1~29일 여수시 문화예술과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꾸려 작품 선정과 구매 가격을 결정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비로 5000만원을 책정했으며 작품당 500만원 이내에 구매할 계획이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2년 동안 지역 작가의 예술작품 22점(구입비 총 8300만원)을 구입해 시청 본청사와 문화홀, 시민회관, 달빛갤러리, 엑스포 아트갤러리 등에 전시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지역 예술인의 작품을 구입해 자긍심과 창작의욕을 높이고, 이를 일반인에게 전시해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를 넓혀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입한 작품에 대한 관리에 힘써 여수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광양 서천·마동 음악분수 내일부터 본격 운영

광양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을 중단했던 서천·마동 음악분수〈사진〉를 4월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서천 음악분수는 고사분수와 화염분수를 통해, 마동 음악분수는 최대 75m의 고사분수와 광양시화인 동백꽃을 연상시키는 원형분수의 다양한 조명과의 조화를 통해 다양한 공연을 선사하게 된다.

고백, 생일, 졸업 등 다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컬러레이저와 빔프로젝터를 통해 워터스크린에 음악과 함께 영상을 표현하는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광양시 홈페이지 하단 관광객 카테고리 내 음악분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문구와 사진을 첨부해 이벤트 희망일 5일 전까지 신청하면 신청자에게 승인 여부를 알려 준다.

서천·마동 음악분수는 10월31일까지 운영하며, 평일에는 오후 8시와 8시30분으로 20분간 공연을 진행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밤 8시와 9시에 30분간 공연을 진행한다.

매주 월요일과 기상악화 등의 경우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배록순 광양시 시설관리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이 신나는 음악분수 공연과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통해 여유롭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곡성군 공무원, 재택치료자 약품 배송 적극 지원

곡성군 공무원들이 코로나19 재택 치료자들에게 필요한 약품을 직접 배송하는 등 확진자 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재택 치료 대응을 위한 보건소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청과 읍면 공무원들이 선별진료소 근무는 물론 재택 치료자 약품 및 위생 키트 등 배송 업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군 본청 직원들은 매일 조를 편성해 선별 진료소에서 자가 진단 키트 검사 안내, 검사 신청서 접수, 역학 조사서 작성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읍면 사무소 직원들은 관할 읍면 재택 치료자의 약품 배송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약품 배송은 배송 시스템이 도시처럼 발달하지 않는 농촌 환경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재택 치료자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전화 처방을 받으면, 읍면 담당자들이 배달해야 할 약품의 수량을 확인하고 매일 보건의료원에서 물품을 수령해 당일 치료자 자택까지 배송한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그린알로에
그린궁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宮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무색소 무감미료 무합성향료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